

편집 및 발행인 : 조정희 원장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총괄 : 김동환 · 감수 : 이연경 · 전화번호 : 051-797-4913 · E-mail : kdong@kmi.re.kr

목 차

▶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

- 문드라항, 월간 최대 '컨' 물동량 기록...북인도 간 내륙 물류는 병목 심화

▶ 공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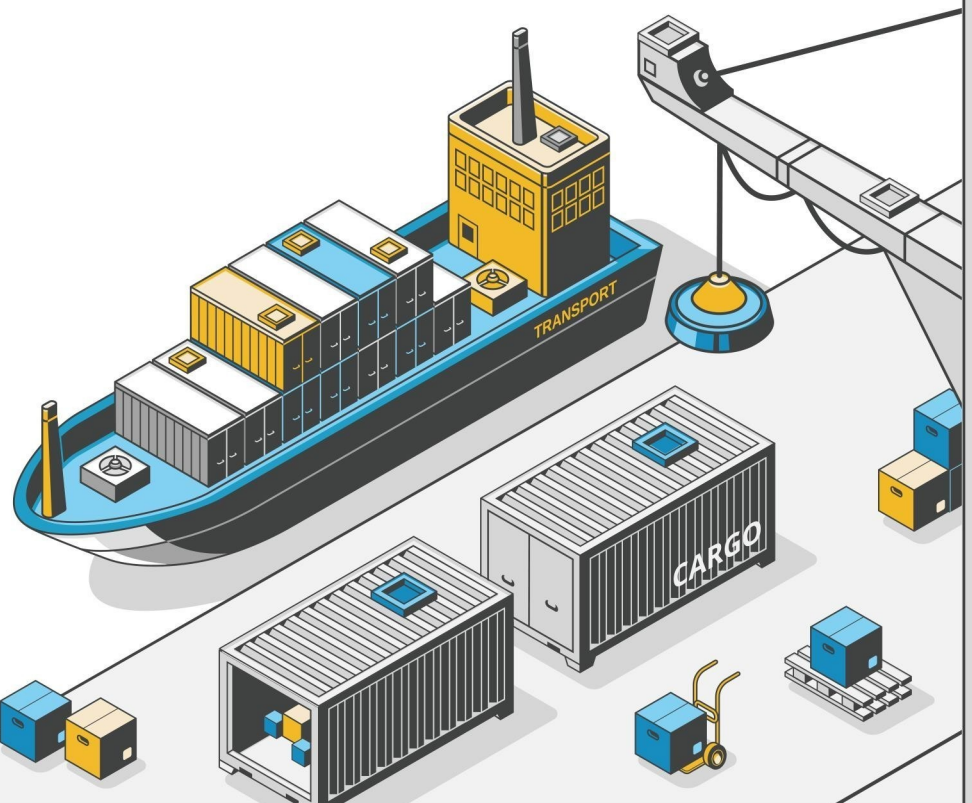
-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 유럽 물류시장 동향

- '산림훼손 안 하는 원두만 수입'...유럽 규제가 바꾸는 커피 시장

▶ 아프리카 물류시장 동향

- 남아공 화물 철도 개혁...민간사업자에 철도망 개방으로 국가 물류 혁신 추진



문드라항, 월간 최대 '컨' 물동량 기록... 북인도 간 내륙 물류는 병목 심화

- ▶ '25년 8월 DP World의 문드라 국제컨테이너 터미널(MICT, Mundra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은 142,273TEU를 처리하며 역대 최대 월간 물동량을 기록함

 - 이 기록은 '25년 3월 기록한 138,983TEU를 넘어서는 성과로 인도의 주요 무역관문으로서 문드라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함
 - 문드라항은 극동,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미국 등 주요 글로벌 시장과 직연결되어 인도 수출입 물동량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
- ▶ 반면, 같은 시기 문드라항의 심각한 항만 혼잡으로 인해 북인도 내륙 화물의 철도 운송 지연으로 수출입 물류 또한 지연되고 있음

 - 문드라항은 철도가 컨테이너 운송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인도 내륙 컨테이너기지자 물량의 큰 비중을 차지함
 - 정기 기항 선사들은 육상 정체로 인해 공급망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선사들은 철도 화차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고 고객들에게 통보함
 - 머스크는 고객 공지를 통해 현재 문드라항으로 향하는 철도 운행이 정체되고 있어, 수출 열차의 정시 배차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수입 컨테이너 반출에도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힘
 - 수입 물동량 적체로 철도 야드 내 입출고 흐름의 기본인 선입선출이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임
- ▶ 인프라 부족이 병목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따른 대응을 촉구하고 있음

 - GDL(Gateway Distriparks)은 문드라항으로 향하는 열차 이동이 매우 느려진 상태이며, 현재 인도 철도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철도 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힘
 - 인도 컨테이너열차운영자협회(ACTO, Association of Container Train Operators)는 내륙 인프라시설의 부족을 항만 혼잡 원인으로 진단함
 - Manish Puri ACTO 회장은 “증가하는 물동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만 철도 처리능력과 반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규모 수요 증가 혹은 외부 요인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반복적인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함
- ▶ 항만 터미널과 컨테이너 철도운행사 간 책임 공방도 격화되고 있음

 - 한 항만 관계자에 따르면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압박은 인정하나 철도운행사들은 수출화물에

대해 여전히 ‘열차 만차 후 출발’이라는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함

- Sunil Vaswani 인도 컨테이너해운선사협회 전무는 “터미널과 철도운행사들 간 조정이 필요하며, 축제 시즌으로 인한 트럭 운전자 부족과 선박의 일시적 집중 입항 현상도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언급함

➤ 문드라항은 처리능력 한계에 직면했으며, 컨테이너 장치량이 20,000TEU까지 상승함

- 문드라항은 일일 최대 30편의 열차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보통 하루 5,000~6,000TEU를 철도로 반출하고 있음
- 야드 내 수입 컨테이너 창치량은 평균 15,000TEU이나 최근 20,000TEU 수준까지 급증함
- 문드라항은 아다니 포트 그룹의 주력 항만으로 5개의 컨테이너 터미널이 운영 중이며, 기존 처리 능력의 90% 이상을 이미 사용 중임

➤ 한편 경쟁항인 나바세바항은 최근 PSA 인터내셔널의 2단계 운영 개시 이후 물동량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25년 4월부터 8월까지 나바세바항의 물동량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330만 TEU를 기록한 반면, 문드라항은 350만 TEU 수준으로 보험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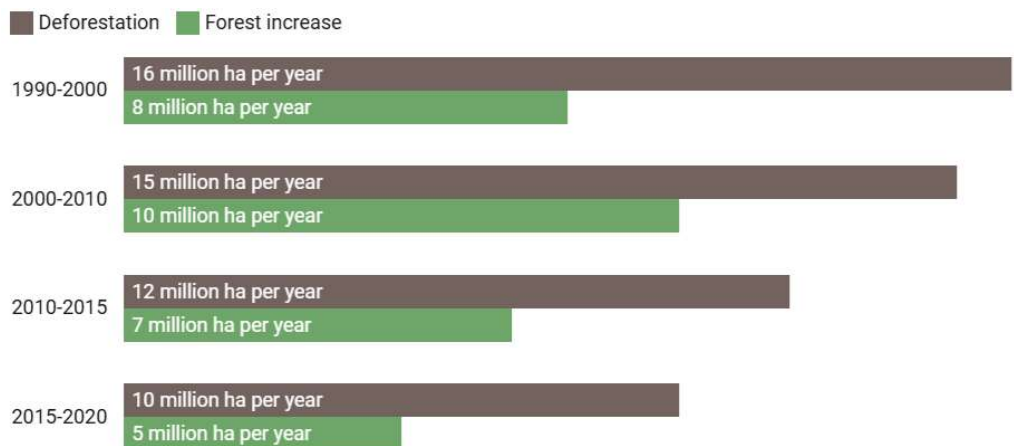
➤ 국내 물류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및 운영 전략 설계 시 현지 철도 및 내륙기지 인프라의 병목 리스크를 반영한 공급망 전략 마련이 필요함

- 항만-철도 연계 불안정성에 대비한 멀티모달 운송 체계 및 재고 분산 전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북인도 항 물류 서비스 제공 시, 문드라항 외 대체 항만(나바세바 등) 활용 전략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산림훼손 안 하는 원두만 수입’... 유럽 규제가 바꾸는 커피 시장

- 최근 유럽연합(EU)이 시행을 예고한 산림훼손 규제가 전 세계 커피 산업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됨
 - 하루 약 20억 잔이 소비되는 커피는 대표적인 글로벌 교역 상품임
 - 그러나 EU는 '26년부터 역내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커피 제품이 '산림훼손과 무관(deforestation-free)'함을 증명하도록 규제할 예정임
 - 즉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커피 한 봉지·한 병·한 캡슐까지 모두 '20년 12월 31일 이후 숲을 개간하지 않은 토지에서 재배되었음을 입증해야 함
 - 이는 커피 재배·거래·판매 방식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됨
- EU가 산림훼손 규제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적 압력이 자리하고 있음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9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약 4억 2천만 헥타르(약 160만 제곱마일)의 산림이 산림훼손으로 사라졌다고 추정함

연도별 산림훼손을 변화 추이



1 million hectare = 3,860 square miles

주 : FAO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자료: <https://theconversation.com/>

- 산림훼손은 생물다양성 손실의 주요 원인이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함
- 커피 플랜테이션은 코코아, 대두, 팜오일과 함께 일부 국가에서 숲 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새로운 규제 대상에 포함됨
- 새 EU 산림훼손 규제에 따라 기업들은 원두가 재배된 농장 필지 단위까지 추적해 공급망
- 관련 문서와 지리적 위치 데이터를 EU 당국에 제출해야 함

- 또한 위성 사진 등 자료를 통해 커피 경작지가 '20년 이전부터 숲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함
- 규정은 원래 '25년 초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러 국가의 반발로 연기됨¹⁾
-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25년 12월 30일까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소규모 기업은 '26년 6월 30일까지 유예 기간을 적용받음

➤ EU의 새로운 산림훼손 규제는 커피 공급망 전반에서 소규모 농가와 대규모 농장의 희비를 갈라놓을 것으로 예상됨

- 커피 공급망은 수백만 농가에서 시작해 수집상, 가공업체, 수출·수입업체, 로스터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복잡한 구조를 지님
- EU 규제가 도입되면 검증 절차와 서류 작업이 증가하고 새로운 원두 조달 전략이 요구됨
- 소규모 농가는 GPS 좌표나 비산림훼손 증빙을 제공하지 못하면 계약이나 시장 접근을 잃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바이어들은 문서를 확보할 수 있는 대규모 농장이나 협동조합으로 거래를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
- 좌표 제공이나 지도 제작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농가는 세계 최대 커피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으나 이미 추적 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농장은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
- 또한 규제는 산림훼손 위험이 높은 국가에 대해 더 엄격한 감시를 요구하므로 무역이 지연될 수 있고 바이어들은 위험이 낮은 지역으로 공급처를 바꿀 수 있음
- 유럽 외부에서도 대형 구매자들은 산림훼손과 무관한 원두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며 소규모 농가가 증빙을 제공하지 못하면 공급망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이는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 나아가 일부 농가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한편 문서화되지 않은 원두는 미국 등 다른 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도 있음

➤ EU 규제 하에서 소규모 농가가 생존하려면 기술 지원과 추적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함

- 소규모 농가는 규제 적응을 위해 기술 지원과 저비용 추적 도구가 필요함
- 일부 국가는 산림훼손 추적을 위한 국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EU에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소규모 농가, 특히 협동조합을 통한 참여 농가는 대형 구매자들에게 '저위험 공급처'로 인식되어 매력적인 거래처가 될 수 있음
- 또한 이번 변화는 레인포레스트 얼라이언스(Rainforest Alliance), 4C 커먼 코드(4C Common Code), 공정무역(Fairtrade) 등과 같은 지속가능성 인증 수요를 더욱

1)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정부와 산업 단체들은 소규모 농가의 무역 마찰을 우려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에도 불만이 접수됨

확대시킬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인증을 받은 농장이라 하더라도 정밀한 위치 데이터를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음

➤ 커피 재배와 산림 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아그로포레스트리 (Agroforestry)가 주목받고 있음

- 아라비카 커피는 본래 숲 속 그늘에서 잘 자라는 품종으로 경작지에 그늘나무를 심어 수관을 유지하면 열과 가뭄을 완화하고 토양 수분 손실을 줄일 수 있음
- 이를 통해 물과 비료 사용을 절감하고 작물의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커피와 그늘나무가 상호 보완적으로 수분을 활용한다는 사실이 입증됨
- 다만 EU 규제 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농장도 '20년 이후 숲을 개간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함

➤ EU 규제는 더 지속가능한 커피를 약속하지만 동시에 가격과 공급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유럽 소비자들은 규제로 인해 보다 친환경적인 커피를 마실 수 있으나 준수 비용이 전가되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함
- 전 세계 무역 흐름이 재편되면서 검증된 원두는 유럽으로 몰리고 미국 등 다른 시장은 가격 상승이나 공급 부족을 겪을 수 있음
- 반대로 문서화되지 않은 원두는 할인되거나 일부 브랜드에서 기피될 가능성이 있음

남아공 화물 철도 개혁...민간사업자에 철도망 개방으로 국가 물류 혁신 추진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화물 철도 개혁을 통해 민간사업자에 철도망 개방 추진

- 남아공 정부는 트랜스넷 화물철도(Transnet Freight Rail)의 구조 개편을 통해 철도망 개방을 결정함
-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은 기존 국영 독점 체제에서 탈피해 민간사업자도 철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철도 노선 접근권(Open Access) 제도를 도입함
- 또한 경쟁 구조를 마련해 물류망 병목 해소, 철도 시설 투자 확대, 운송 경쟁 촉진 등을 중장기 전략으로 설정함
- 이는 장기간 누적된 철도 운송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로 볼 수 있음
- 또한 남아공이 가진 자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화물 철도의 민간사업자 개방 개혁은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로 보임

▶ 글로벌 물류기업 MSC 등 민간 운영사로 승인된 기업 대상 화물 철도 운행 계약 체결

- 남아공 정부는 안전, 기술적 요건을 충족한 10개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으며 이 중에는 글로벌 물류기업인 MSC가 포함됨
- 정부가 선정한 민간사업자는 '25년부터 일부 회랑 구간에서 직접 화물 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며 계약 기간은 1년부터 최장 10년까지 계약 조건에 따라 따름
- 정부는 철광석, 석탄, 망간 등 광물 회랑 중심으로 민간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 이는 복수 민간 운영사가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남아공 화물 철도 운송망 및 주요 수송 화물



주요 회랑	주요 수송 화물 및 특징
석탄 회랑	음푸말랑가에서 리처즈베이 석탄 터미널까지 석탄 수송
철광석 회랑	노던케이프 지역 광산과 살다냐 심해항 연결
망간 회랑	벌크 광물 중 하나인 망간 수출
크롬 회랑	주요 크롬 광산 지역이 해외 시장 접근을 가능
일반 화물 회랑	내륙 광산 및 산업 생산자 주요 터미널 연결
컨테이너 회랑	산업 중심지와 컨테이너 항만 연결

자료: ResearchGate, <https://discoveryalert.com.au> (검색일: 2025.09.03.)

➤ 이번 철도 개혁을 통해 남아공의 수출 경쟁력 제고와 민관 협력 기반 조성

- 남아공 정부는 본 개혁을 통해 남아공을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물류 중심 국가로 도약 시키고자 함
- 화물 철도 개혁의 핵심인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통해 운송의 정시성과 물류 효율성이 향상 될 것으로 전망되며 철도망 개방은 민간 투자 유인을 확대해 인프라 현대화를 가속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항만과 내륙 산업단지 간 연결성이 강화되어 자원 수출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



친구 추가 방법

1.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



2. '국제물류 정보포탈'
검색



3. 친구추가 버튼

